

2025 서울돈화문국악당 공동기획 돈화문커넥트

<흙의 소리, 훈의 소리>

2025.5.17.(토)-5.18.(일)



- 도자기로 빚은 소리 도자관악기 ‘송훈’… 전통음악의 새로운 해석
- 202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창작주체 선정작
- 서울돈화문국악당 공동기획 ‘돈화문커넥트’로 무대에

공 연 명	서울돈화문국악당 2025 돈화문커넥트 <흙의 소리, 훈의 소리>
공연장소	서울돈화문국악당
출 연	송경근, 박승원, 강선일, 박경소, 김위연, 윤보연, 신현식
주최·주관	공간서리서리
일 정	2025.5.17.(토) 15:00, 2025.5.18.(일) 15:00(총 2회)
티 켓	전석 30,000원
후 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창작주체지원사업, 서울돈화문국악당
예 매	서울돈화문국악당(sdtt.or.kr)
문 의	02-3210-7001

다운로드 링크▶

서울돈화문국악당
콘텐츠사업팀

팀장 백설희 T. 02-3210-7012
PD 김효정 T. 02-3210-7003

서울돈화문국악당은 오는 5월 17일(토)과 18일(일), 전통 도자관악기 ‘훈’의 소리를 현대적으로 조명하는 공동기획 공연 <흙의 소리, 훈의 소리>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국악당의 공동기획 프로그램 돈화문 커넥트의 2025년 첫 번째 시리즈로, 서울돈화문국악당과 예술단체 공간서리서리가 협력해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넘나드는 무대를 마련했다.

흙으로 빚은 악기 ‘훈’을 바탕으로 창작된 도자관악기 ‘송훈’이 중심이 되는 이번 공연은, 전통악기의 재료적 특성과 음색을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낸 창작국악 무대다. <상주아리랑>, <소편영산회상>, <송훈산조> 등 전통 선율을 바탕으로 새롭게 구성된 창작곡들이 연주되며, 송경근을 비롯한 국내 국악계의 창작국악 연주자들이 대거 참여해 흙의 울림을 무대 위에 펼친다.

본 공연은 2025 공연예술창작주체 지원사업 선정작으로, 공간서리서리가 주최·주관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돈화문국악당이 후원한다.

<흙의 소리, 훈의 소리>는 전석 30,000원이며, 예매는 서울돈화문국악당 누리집(www.sdtt.or.kr)에서 가능하다. 국가유공자, 경로우대자, 다둥이카드 소지자, 장애인 등에게는 50%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청소년, 서울남산·돈화문국악당 기획·공동기획 재관람객, 한복 착용자 등에게도 다양한 할인이 적용된다. 기타 문의는 02-3210-7001로 하면 된다.